

막다른 서민들 사채 수렁에

광주 대부업 대출 7개월새 2배 폭증
은행들 돈줄 옥죄 '살인금리' 내몰려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마저 돈을 움켜쥐면서 광주 지역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관내 등록 대부업체(415개)의 대출 총액은 1천9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현재 등록 대부업체(362개)가 빌려준 992억원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대부업체 거래자도 지난 3월 말 현

재 3만7천979명에서 7만8천5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빌린 돈의 액수를 개인별로 환산하면 평균 242만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 불법 대부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사채 규모와 이용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장기불황 여파로 생계·자급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30~49%에 달하는 고을

이자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를 찾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만8천여개 등록대부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대출 총액은 7조191억원으로 지난 2006년말 3조5천억원에 비해 2배 늘었다.
대부업체 거래자도 지난 2006년 12월 83만3천명에서 올해 6월말 171만9천3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가 3천7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22명당 1명꼴로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면서 고리 대출과 불법추심 행위, 무등록 업소 난립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순천경찰은 최근 영세 기업체,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 850%에 달하는 고리를 받아 챙긴 정모(25)씨 등 21명을 대부업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광주시 경제과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의 서민 금융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채의 벼랑으로 불리는 서민들이 늘 수밖에 없다"며 "사채시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러시아 기술로 제작된 1단 로켓과 항우연이 자체 개발한 2단 로켓의 결합 시험이 이뤄졌다. /고흥=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형 위성발사체 1단·2단 로켓 결합 성공

고흥 나로우주센터

"3mm 전진, 5mm 우측으로..." 20일 오후 2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0.0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50여명의 러시아 기술진과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긴장감 속에 로켓을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인터뷰 20면>
내년 4~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릴 한국형 소형위성발

사체(KSLV-1)가 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월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로켓과 항우연이 자체 개발한 2단 로켓이 결합된 것이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작업을 시작한 지 22시간 만이다.
KSLV-1은 과학기술위성 2호가 탑재된 2단 로켓과 발사 직후 KSLV-1을 지상에서 우주로 올리는 1단 로켓으로 이뤄졌다. 전체 길이 33m, 지름 2.9m, 총중량 140t이다. 1단은 액체엔진과 노즐, 연료탱크 등으로 구성돼 있고 길이는 25.

8m다. 이 로켓은 액체연료 130t을 사용해 170t의 추진력으로 우주를 향해 치솟게 된다.
과학기술위성 2호가 실리는 부분인 2단은 국내기술로 제작한 고체로켓과 위성탑재 공간, 위성을 보호하는 노즈페어링 등으로 구성돼 있고 길이는 7.7m다.
러시아 기술 총책임자 구셉이나 블리세는 "러시아의 최신 기술로 제작된 1단 로켓은 한국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박정욱·주각중기자 jwpark@

여수박람회 상징 조형물 박람회장 중앙에 세운다

추진위 구성... 현상공모 통해 확정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대형 상징조형물이 박람회장 중앙에 설치될 것으로 보여 박람회 성공 개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20일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고, 오는 24일 국회 지원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25일 열리는 정부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최근의 박람회 추세를 감안, 상징탑과 같은 별도의 시설물을 기본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

나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상징조형물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박람회장 중앙인 한국관 전면 수변 광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키로 잠정 결정하고 형태·기능·규모 등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상징조형물에 여수박람회 주제, 개최지의 특성, 미래 지향성을 기본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 전문가와 지역인사 등이 포함된 '상징조형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상공모 방식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는 그동안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안) 설명회 등을 통해 제시된 상징조형물의 높이 30m, 투입예산 453억원 등으로 하는 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최종 결정은 '상징조형물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또 한국관·주제관 등도 현상 공모를 통해 대표 상징 건축물로 건립하고, 'Big-O' 등을 주제 구현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직위는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박람회 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주택공사와의 사업협약 체결도 11월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밖에 조직위는 1실, 3본부, 18개 팀(110명)인 기존 조직위 사무처를 울말까지 사무차장, 6본부, 27개팀(200명) 체계로 개편, 내년부터 운용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금융시장 또 '패닉'

코스피 950 무너지고 환율 1,500원선 육박

코스피지수가 1,000선에 이어 950선까지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천500선(1천497원)에 다가서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11면>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8.13포인트(6.70%) 급락한 948.69로 마

감했다. 코스피지수가 8거래일째 하락한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24.35포인트(8.19%) 급락한 273.06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도 못 돼 다시 시가총액 500조원을 밑돌아 482조6천440

억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500원 폭등하면서 1천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0.50원 급등한 1천4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98년 3월13일 1천521원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호남한샘학원
호남한샘학원
호남한샘학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청연한의원
청연한의원
청연한의원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입니다.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입니다.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입니다.

ARITAUM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입니다.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입니다. 아리따움은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입니다.